



# Be the Savior of Myanmar(미얀마의 구주 되소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행16:9)

ငြိမ်းသက်ခြင်းရှိပါစေ။(응에인땃친시바세/평안하세요)

살롬.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십니까?

최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와 인사가 갖는 귀하고 값진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살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속에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들에 뒤영켜 지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한 뒤로 제법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간 누적된 긴장탓인지 잦은 몸살과 배탈에 고생도 했고 최근 몇 주간은 치통에 시달리며 귀가후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눠야겠다는 의지와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얀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큰 고비였던 지난 6월부터 9월중순까지 현지인들은 물론 선교사들과 많은 한인들이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도 있었기에 마음의 상실과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컸고 죽음의 공포가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타지에서 제대로 된 치료와 조치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선교사들과 한인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장례도 많이 경험했고 목사로서 다른 이들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음에도 죽음이 이렇게 턱밑까지 가깝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지를 오가거나 잠시 집밖을 나설 때에도 방역복으로 온 몸을 무장하고 소독용 알코올을 수시로 온 몸에 분사하며 과할정도로 방역에 신경을 썼습니다.



6~9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한 시기 집밖을 나서기 전과 귀가중 모습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역과 관련하여 약속을 잡거나 타지역을 방문하는 일정, 그리고 정성으로 섬겨왔던 Girigo 교회를 향하는 기쁨도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는 변함없이 이곳 미얀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선교지와 선교지의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많은 분들의 중보와 간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평소 즐겨 부르던 “약할 때 강함되시는(고후12:1-10)”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붙잡았습니다.

내 강함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내 약함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더욱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호전된 상황속, 안도감에 드러지는 감사일 수 있지만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삶 그 어느때보다 분명하고 빛나는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12:10)

작년 3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올 2월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일시귀국을 종용해 주셨습니다.

때마침 올해는 첫 안식년도 맞물려있어 일시귀국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기도편지에도 몇차례 언급했지만 작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얀마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잠시 한국에 다녀오는 것도 나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남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저희가운데 주어진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에는 쿠데타까지 발생하면서 또 한번의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주님께서서는 동일한 마음과 말씀으로 견딜 힘과 능력을 공급하셨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이 기간동안 선교사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보람, 그리고 기적같은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노력에 비해 더디기만 했던 사역들이 이 기간을 통해 더욱 과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불교와 힌두교가 대다수인 마을에서 교회의 존재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모임규제로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

이 불가능했지만 위기가운데 더욱 빛을 발한 교회의 역할이 마을과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쿠데타의 여파로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가난한 이웃들의 의료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전달된 의약품들이 Grigo교회를 통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저희 차량을 이용해 운영중인 병원과 연결하고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마도 미얀마에 온 이후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교회밖에서 복음을 전해본 것 같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던 중 마음이 가장 두근거리고 흥분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불자인 이들에게 한국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치유하시는 주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잡한 설명이 아닌 원색적으로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사진(좌): 2월출산 '호니넛탄신'  
내년 1월 출산예정 '마태'  
사진(우): 4월출산 '잇수동'

올 2월과 4월에는 2명의 산모가 Grigo교회를 통해 귀한 생명을 출산하였고 현재도 1명의 산모(사진 녹색상의)가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얀마사회에서 심한 차별과 외면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센인들(홀레구, 만달레이 한센인마을)에게 생계에 필요한 긴급재정과 의약품을 지원하였고 이들이 주님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귀한지를 매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 열악한 현지교회 3곳과 병원에 산소발생기와 의약품을 지원하여 교회가 속한 마을이웃들을 섬기게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쌀과 구제용품, 그리고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서 무시받고 외면받던 교회들이 이제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될 장소로, 또한 대다수가 불교인 마을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6~9월까지 산소통과 산소충전 대란

특별히 미얀마는 금번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산소통확보와 충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산소포화도 저하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미얀마의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에 연락을 주셨던 동역교회들과 동역자분들의 신속한 지원으로 전기만 있으면 무한으로 산소가 발생하는 고가의 산소발생기 10대(2대 한국에서 수송, 8대 미얀마내 수입업체를 통해 구입)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위기가운데 있는 미얀마에 속속 도착하였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위독한 환자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산소발생기와 의약품을 사용, 전달하면서 소망과 위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미얀마에서 저희가정과 저희사역의 존재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다 격려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견디는 것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 않게 하였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더디기만 했던 일들을 놀랍게 풀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더욱 빛나는 섬광처럼, 가장 힘들고 위기가 여겼던 상황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16:9)*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낯선 땅 미얀마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과 영혼들을 주님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품어 주시고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그 시간을 채워주셨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저희가정을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를 동역교회들과 동역자들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 기도편지를 읽고 계실 모든 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 미얀마의 현상황

1)현재 미얀마는 코로나19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재유행,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낮은 백신접종률(백신수급의 어려움)과 뚜렷한 대책없이 상황을 방치하는 군부의 무능도 큰 문제입니다. 구데타와 맞물려 의료진과 의약품 수급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미얀마로 국한된 은혜와 기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믿는 우리가 하나되어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을 아울러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나라가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를지라도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모든 뜻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며 영광받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해 미얀마의 비참함을 요약한 “Less(없음)”  
2월-법없음, 3월-자비없음, 4월-돈없음  
5월-집없음, 6월-산소없음, 7월-생명없음

2)코로나19로 잠시 잠잠했던 내전양상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선언한 NUG(임시민주정부)와 각 지역에서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중인 시민방위군(PDF)의 활동이 더욱 거세지면서 군경의 대응도 다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군경의 시설물, 관공서, 군부와 관련된 업체 등에서 크고 작은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주요인물 암살과 게릴라식 교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국과 맞물려 실업률과 물가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고 결국 이 모든 고통은 가난한 이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공의의 주님께서 이땅 미얀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확신합니다.

최근 미얀마를 위해 기도할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미얀마의 미래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결론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마음을 기도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 미얀마를 위한 기도제목

우선 미얀마선교가 쿠데타정국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거나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도착한 2016년은 현재 구금중인 아웅산 수지여사와 NLD(민주주의 민족동맹)가 선거(2015)에서 압승한 해입니다. 오랜 군사정권이후 첫 민주집권으로 사회,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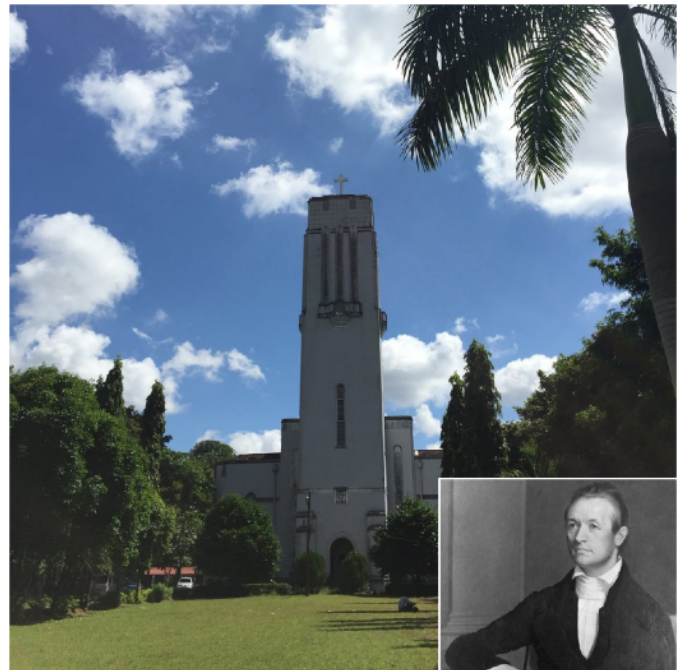
치, 경제,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가 시작된 상징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배이후 국교인 불교를 정치에 이용한 군부정권에 의해 외세종교로서 기독교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선거이후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기독교의 활발한 움직임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현재 미얀마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얀마의 기독교와 선교사역이 2016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내년 2022년은 미얀마선교 209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선교역사에 비해 교회성장과 부흥이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이땅에 그루터기를 남겨 두셨고 이를 통해 이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미얀마기독교가 다시금 눌리고 핍박받는 상황이 우려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연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빛날 미얀마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 1788~1850)선교사가 미얀마에 첫 발을 내딛(1813)이후부터 지금까지, 혼돈의 역사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온 미얀마 교회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미얀마선교와 이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주시시오.



양곤대학교내 저드슨기념교회와 유라단(저드슨선교사의 미얀마이름)

둘째로,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룬다해도,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가 보장된다 해도 그것이 선교의 목표와 목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들, 또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찬란한 꽃을 피운다해도 인류역사는 그토록 바라던 유토피아를 단 한번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얀마가 여전히 가난하고 변화없는 현 상태에 머물러 있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미얀마가 우리나라와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고 어떤 주제이든 자유가 많아졌으



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부유한 나라에도 가난한 이들과 비참한 현실속에 고통받는 이웃들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죠. 미얀마이웃들에게 한국은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은연중에 현지동역자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한국과 같이 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인 듯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미얀마 친구들에게 한국의 부유함을 마치 복음처럼 소개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고자 하는 시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앞서 문민정권이 집권한 미얀마의 2016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방과 자본의 유입 등은 선교에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자본의 힘은 맘몬(Mammon)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물질선교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쉽지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선교사역에 재정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가난과 빈곤을 외면한채 영적인 양식만을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 몸과 영이 묶인 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능력있는 정부도 경제적인 부유함도 신앙처럼 되어버린 이념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불안정한 시국의 미얀마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반영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 1)미얀마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위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얀마의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9월초까지는 의료용 산소통의 부족과 산소충전의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양곤의 몇 안되는 산소충전시설은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약국에서는 해열제와 진통제 등 기본적인 의약품도 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위급한 미얀마의 상황을 아시고 연락을 주셨던 몇몇의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의 신속한 결정으로 고가의 산소발생기 10대를 초기에 구입하여(2대 한국공수, 8대 미얀마내 무역회사를 통해 구입) Girgo교회와 지방의 현지교회 3곳, 그리고 미얀마 북부의 기독교종족이 속한 기독교병원에 산소발생기를 비치하여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마스크와 구제물품, 그리고 긴급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산소발생기 전달 및 사용

교회 및 단체의 긴급선교비와 함께 동역교회와 개인후원자분들께서 매일 섬겨주시는 선교헌금의 일부도 코로나19와 쿠데타로 고통받는 미얀마이웃들에게 긴급 재정으로 구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미얀마 이웃들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얀마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사랑, 그리고 섬김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아원 및 현지교회, 사역지에 쌀과 의약품 전달



## 2) 양곤 울레Grigo교회를 위해

4년전 개척한 양곤 울레(마을름)의 Grigo교회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지난번 기도편지에도 언급했지만 환율상승과 부동산 하락 등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장소보다 더욱 좋은 부지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부지에는 첨부된 사진에서와 같이 적당한 크기의 건물도 존재합니다. 이미 전기선도 들어와 있고 작은 용량이지만 즉시 사용가능한 지하수도 타설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그동안 사용했던 Grigo건물의 임대가 만료됩니다. 건축은 내년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새로 구입한 부지내의 낡은 건물을 보강공사하여 임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새부지에 있는 낡은 건물의 1차 보강공사를 이미 시작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순에는 보강공사중인 건물의 인테리어 작업과 함께 건물 뒤편의 빈 부지를 잘 활용하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양육공간(2층)을 새롭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마을의 첫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부지와 건물, 그리고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모금을 위해 3년이라는 제법 긴 기간을 함께 기도해주시고 선교비를 보내주셨던 모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곤 울레의 첫 교회인 Grigo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건축과 봉헌까지 모든 과정이 주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혜가운데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입한 Grigo교회 새부지 / 새부지 내 기존건물 1차 보강공사 진행중  
내년 중순 잔여부지에 2차 신축공사예정

## 3) 신앙공동체 설립을 위해

미얀마청소년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년이 되는 시기에 대학진학 혹은 직장을 찾아 일을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건 오랜기간 정성과 관심으로 돌봐왔던 친구들도 이 시기에 맞춰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대학가 근처의 기숙사(학업과 아르바이트를 위해)로, 취직친구들은 일터근처의 기숙사로 삶의 터전을 옮기곤 합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떠나보낼 때면 그동안 공들여왔던 시간과 노력들이 마치 물거품처럼 느껴집니다.

떠나는 친구들도 우리와 더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에 많이 아쉬워합니다.

저희는 Grigo교회에서 배출될 친구들 중 일부와 성년이 됨과 동시에 마을과 부모를 떠나야만 하는 한센인 2세대(동환), 그리고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지방의 현지교회에서 동일한 이유로 고향을 떠나 양곤으로 향하는 청년들을 위탁받아 저희가정과 함께 신앙공동체생활을 이루려 합니다.

집중적인 예배와 양육을 통해 이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고 싶습니다.

이미 이전 기도편지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미얀마 고아들의 문제도 이 공동체를 통해 미션홈, 혹은 그룹홈(Group Home or Mission Home)의 형태로 운영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전과 불의한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가난과 빈곤의 문제로 버림받은 아이들에 대한 소식들을 지방의 현지교회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도움과 요청이 어느덧 저희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내전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고아발생

공동체를 이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헌신과 인내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와 쿠데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미얀마의 상황을 몸소 겪으면서 공동체에 대한 갈망과 확신이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사역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전 삶과 인격에 조금이라도 더 깊이 다가설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어린시절부터, 그리고 사고가 열려 있는 청년의 때에 신앙공동체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더욱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반응하는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를 뛰어넘는 열정으로 자신들의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준비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몇년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 기도해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최근 미얀마의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한국의 지인분들과 공동체와 관련된 기도와 계획들을 나누었고 이 사역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며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후 미얀마의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공동체설립에 필요한 부지구입 헌금을 모아 전달해주셨습니다.

현재 공동체를 이룰 적당한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지구입이 이뤄지면 올레 Grigo교회와 함께 내년에 두곳의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일이 커진 것 같아 솔직히 부담도 되고 조심스런 마음도 들지만, 파송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경험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선교의 요람, 그리고 고아들과 청년들의 소중한 울타리가 되는 신앙공동체가 주님의 뜻과 계획가운데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4)주님만이 드러나는 사역을 위해

미얀마는 여전히 쿠데타의 위협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비는 잠시 지나갔지만 이내 잠잠하던 시민방위군과 군경의 교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경의 시설물과 관공서, 그리고 군부와 관련된 사업체에서 자주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얀마 교육자, 의료인 등 지식인들의 민주화시위와 체포

내전으로 인해 저희가 겪는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외출시에 수차례 군경의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검문 자체도 부담되지만 코로나19가 존재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직접 차량에 탑승하여 검문하는 것이 매우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체포작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깊이 참여하고 온라인에서 반군부시위를 규탄하는 이들을 수배자로 지명하여 매일같이 국영TV에 얼굴과 이름(부모와 가족의 이름까지도), 고향과 거주지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집제도 어려울만큼 많은 이들이 군경에 의해 학살당하고 있고 투옥되어 있습니다. 시민방위군의 활동이 포착된 지역이나 마을의 결과가 어떤지 알리기 위해, 그리고 다른마을에서 시민방위군을 환영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서 마을 전체를 불태우며 잔혹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친주(Chin State)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 판틀랑에 포격과 방화 친주시민방위군의 미얀마 보안군 공격에 대한 보복, 마을 거의 전체가 전소

불안정한 시국에 많은 외국인들과 기업들이 미얀마를 떠났습니다. 한정된 일자리와 높은 실업률, 낮은 외환(US달러) 보유고와 석유값의 폭등은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서민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얀마 어린이들이 교육당국과 부모의 방임속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젊고 평범한 여성들은 거리에서 몸을 팔기위해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연신 손짓을 하며 생존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공교육은 장기간 멈춰선 상태이고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군부의 교육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더욱 극빈한 삶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권리는 물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받지 못한채 그저 희망없는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양곤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양곤 시내와 전혀 닮지 않은, 어찌보면 미얀마의 현상황을 가장 사실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풍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얀마 이웃들의 소망과 바램을 저희가 모두 알수는 없지만  
사역지의 가난하고 평범한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소박하기 그지 없는 꿈을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가족들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소박해도 너무 소박한 삶을 나름 꿈꾸 뿐입니다.

종교와 문화, 선교와 신앙을 떠나 이들의 작고 소박한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이웃들을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의 문화와 언어, 아니 어쩌보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유난히 사랑하는 미얀마이웃들입니다.

한국전쟁당시 직접 참전은 아니었지만 한국을 지지한 UN 국가들(63개국)중 하나로 물자지원을 담당했던(63개국중 39개국 물자지원, 5개국 의무지원) 미얀마(당시 버마)입니다. 저는 과거 한국전쟁당시 미얀마가 한국을 도왔던 일화를 미얀마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자주 소개 합니다.

특히 구제사역에서 물품을 나눠줄 때면 먼저 과거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를 소개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부유한 나라의 외국인이 구호물품을 나눠줄 때 그들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길 바라는 나름의 배려에서입니다.

때론 선교와 전도가, 그밖에 복음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재정의 낭비일 수 있고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어리석음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우리가 받은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 은혜와 구원의 주님께로 연결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모든 사역들, 특별히 코로나19와 쿠데타의 상황속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구제사역이 은혜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선교사가정을 위한 기도

저희 가정은 주님의 은혜와 평안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이던 8월과 9월중에 중국봉제협회 주관으로 중국인들과 관련자들의 백신접종이 있었습니다.

한국봉재협회와 한인회는 미얀마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 중국봉재협회에 백신접종을 요청하였고 해당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중국 시노팜백신의 접종을 허가해주었습니다.

백신관련 공지이후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물백신(=중국 백신)이라는 조롱과 함께 혹여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 걱정까지, 나름 고민이 컸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량이라도 중화항체가 형성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백신접종을 신청하였고 두번(1~2차)에 걸쳐 중국 시노팜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사망을 종종으로, 종종을 경증으로 막을 수 있다는 희망섞인 소문들이 우리에게 꼭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접종에 임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증상도 없고 기분탓인지 심적 안도감에 이전과 같은 두려움도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당시 물자지원으로 한국을 도운 미얀마(구 버마)

최근 구제사역에 집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에 있어 과거 한국이 미얀마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듯이 우리의 선교는 무명의 조선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은혜에 닿아있고, 그 은혜의 뿌리는 결국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당연한만큼 우리의 선교의 목표가, 그리고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만 드러나고 말씀이든 구제든 선교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은혜와 구원의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봉재협회주관 시노팜백신접종 & 백신접종증명서

저희 부모님은 중국 시노팜백신이 비록 물백신이란 조롱과 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의 첫 표적과 기적으로서 가나의 혼인 잔치(요2:1-11)를 떠올리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중국산 물백신에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 1)이정아선교사를 위해

이정아선교사의 목디스크증상은 이전보다 훨씬 호전되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칭과 바른자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서 증세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가끔씩 통증이 찾아오지만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아내의 목디스크증상과 두통, 그리고 신경성으로 오는 복통과 소화불량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찬미, 찬희, 찬영이를 위해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거의 매일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이후 아이들은 작은 감기증상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는 찬미, 찬희, 찬영  
외발자전거 달인, 양계전문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칼림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에 답답함도 있지만 마당에서 닭과 토기도 키우고 올 초부터는 자세와 운동효과에 좋은 외발자전거를 배워 3명 모두 전문가수준의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지내줘서 얼마나 대견하고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MK(선교사자녀)의 시간과 경험들이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여정가운데 귀한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 찬희, 찬영이가 지금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했으면 좋겠고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처럼 즐겁고 흥미롭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진지하면서도 창의적(?)인 기도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찬미, 찬희는 올해에만 벌써 성경을 각각 2독씩 완료 하였습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부는 한국의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뒤쳐질 거라 생각됩니다.(솔직히 3명 모두 아빠를 닮아 공부는 별로입니다.ㅠ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은 그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런 찬미, 찬희, 찬영이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3)김병훈선교사를 위해

-건강을 위해

저는 소심한 성격 탓에 스트레스도 많고 신경성으로 인한 몸살과 배탈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최근 몇달 긴장하며 움직인 탓에 살도 많이 빠지고 작년에 이어 다시 치통이 도져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오른쪽 위 잇몸이 몇 주간 풍성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동일한 부위의 어금니가 아랫니와 스치기만 해도 머리 전체와 온 몸이 떨리고 표현 불가할 통증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곳에 통증으로 동네치과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충치도 없고 신경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 다며 진통제만 처방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파서 제발 아픈 이를 뽑아달라고 했지만 의사선생님은 괜한 생니를 뽑을 수 없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이후 저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사선생님께서는 통증이 있는 어금니의 3분의 2를 납작하게 갈아 주셨습니다.

이후 위아래 치아가 닿지 않아 통증도 줄어들고 너무나 좋았는데 올해 다시금 동일한 부위에 치통이 찾아왔습니다.

치통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연약한 종의 치통이 깨끗이 사라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에 정직과 겸손할 수 있도록

미얀마가 비록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얀마를 향한 기도와 관심,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그 기도와 관심이 미얀마이웃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얀마에 보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을 감당하고 집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솔직히 마음에 부담도 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미얀마에 도착하여 얼마간 정착과정에서 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지에서는 아무도 나를 간섭하거나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교역자시절을 돌이켜보면 새벽예배 차량은행과 설교준비, 성경공부와 심방, 사무실업무 등 비교적 생활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여러 시선들도 의식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인 유익임에도 의무감과 수동적으로 해왔던 일들(예를 들어 설교를 위한 성경읽기와 연구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온 이후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저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날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때론 편하기도(?) 하고 때론 죄스럽게 느껴지는 묘한 감정들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종종 그런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지만 짧은 기간 선교지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유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남용되고 절제되지 않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비록 의무감에 형식적일지라도, 때론 반강제적일지라도 그렇게 보호받고 매 순간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영적(동시에 육적으로도)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선교지의 삶은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더 깨어있지 않다면, 더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순되게도 선교사 자신이 가장 위험한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익한 종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저를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과 기도께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정직과 겸손으로 늘 깨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섬김의 대상인 미얀마 이웃들을 은연중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늘 떠올리며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귀국을 위해

한국에서 저희 가정의 안부가 궁금해 연락을 주실 때면 언제쯤 귀국하는지 묻곤 하십니다.

저희도 요즘 치료와 쉼을 위해 잠시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귀국일정을 확정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역지와 현지동역자들, 그리고 섬기고 있는 사역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해야 함에도 자꾸만 내가 없으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 집니다. 내 생각과 고집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정치는 아니지만 내년(2022년)에는 잠시라도 한국에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모두 건강검진과 밀린 치료도 받았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제2기 선교를 위한 배움과 훈련, 그리고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긴 시간동안 고국에 머물 수 없겠지만 근래 많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경험하면서 안식과 치유의 시간이 저희가정에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가운데 열리고 허락되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쿠데타이후 미얀마의 출입국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입국시 미얀마정부의 특별입국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매월 제한된 인원내 한해 미얀마의 입국과 체류목적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급도 이전과 달리 장기비자발급(1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얀마를 오가는 항공편은 MAI항공(미얀마국제항공)이 유일합니다. 한국-미얀마 노선을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MAI항공은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활용하면서 좌석에 한국인 탑승객수의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항공료도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고 좌석예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신속하게 국경과 하늘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도-미얀마의 국경과 항공편을 일시 폐쇄하였고 기타 관련국 항공편과 미얀마국내항공편 일부도 무기한 결항중입니다.

경우에 따라 재입국의 기간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고 재입국 이후 의무인 시설격리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19의 상황속에서 선교지로 쉽사리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어느나라든(특히 저개발국 위주의 선교지) 재입국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한국으로 일시귀국이 가하든 불가하든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고 기도한 일의 모든 결과는 모두 최선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상황들이 보다 안정되어 제 개인적으로 한국에 다녀오는 일정이 허락되고 무엇보다 선교사들의 이동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맺는 말

오랜만에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번 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여러 기도제목들을 한마음으로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꿈같은 이야기지만 최근들어 더욱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듭니다. 고국의 향기, 고국의 사람들, 고국의 음식, 무엇보다 한국어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뽀 낱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정도 건강을 잘 지키고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며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앞에서, 그리고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일에 Grigo교회 성탄행사와 (12월 25일에 있을 Grigo성탄행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년소식을 담아 기도편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올레 Grigo교회와 기독교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동역자 마라와 튜툰

## Missions Together

### <연락처 및 소식나눔>

- 1) 959779576188(미얀마), 010-9315-1021(한국/귀국시)  
 2) 카톡: stephen0118 3) email: stephen0118@hanmail.net  
 3) 블로그: <http://blog.naver.com/stephen0118>

### <후원안내>

- 1) 농협 90105056002895(김병훈)  
 2) 미션펀드: <http://go.missionfund.org/stephen0118>

저희가정은 동역교회와 동역자분들을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메일과 카톡으로 기도제목과 소식들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인터넷 검열이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도편지는 보안상 교회내에서만 공유해주시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 그밖에 외부로 문서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